엄홍길과 지리산 걸으며 국립공원 50주년 축하

구례군 기념행사·공모전 다채
9월1~2일 서시천공원 일대
지리산정원 개장식도 열려

구례에서 본 국립공원 지리산 전경. 〈구례군 제공〉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지리산권과 연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구례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이틀간 구례 서시천체육공원 일대에서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심포지엄·지리산정원 개장식·비전선포식·축하공연이 첫째날 치러지고 둘째날에는 트래킹 행사가 열린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지역민 힘으로 지정된 지리산 국립공원의 역사성,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깨우다·잇다·지키다'라는 슬로건을 반영, 지리산·국립공원·지역민, 탐방객이 소통하면서 더 나은 친환경적 지리산과 구례를 만들어가자는 비전도 선포할 계획이다.

지리산국립공원 지정(1967년 12월29일)이 1963년 구례군민들의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과 1만 가구 성금 모금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에게 50주년을 맞는 의미는 남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게 구례군 설명이다.

우선, 심포지엄은 국립공원 발상지인 지리산의 가치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 모색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원 관리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다.

'지리산국립공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지역협력 방안'을 주제로 오구균 호남대 교수 등이 '지리산국립공원 보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된다.

지리산정원 개장식도 열린다.

지리산정원은 생태숲(155ha)·지리산자생식물원(15ha)·수목원(54ha)·자연휴양림(34ha)·야생화테마랜드(23ha)·숲속수목가옥(10동) 등을 포함한 자연휴양림으로, 구례군은 단계별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개장식을 갖는다. 구례군은 이날 행사를 통해 국내 최대 산림복합휴양단지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밝힐 예정이다.

엄홍길대장과 구례 연하반을 걸으며 국립공원 지정 의미를 되새기는 ▲지리산 트래킹, 연하반 산악회원을 중심으로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에 힘쓴 ▲명예산악인 선발, 지리산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일 초·중·고교생들로 이뤄진 ▲주니어 레인저 임명, 영상·광고 공모전 등도 이같은 취지로 진행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자연을 사랑하는 구례 지역민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리산을 보전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기자 ljt@

전국 방방곡곡 구례 알리기
SNS 서포터즈 16명 위촉

구례군은 최근 신관 소회의실에서 구례군 SNS 서포터즈 4기 위촉식을 개최했다.

구례군은 SNS 활성화를 통한 군정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힐링도시 구례군'의 정책·행사를 소개할 서포터즈 16명을 선발했다. 앞서, 구례군은 지난 2014년부터 SNS 서포터즈 위촉, 운영해 왔다.

이들은 서울, 경기도, 순천, 광양, 구례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1년 동안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으로 구례군 정책과 축제, 행사, 주요 관광지, 맛집 등을 알리는 역할을 맡게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위촉된 서포터즈가 구례의 다양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기자 ljt@

여름 방장산은 천연 천문관 최근 장성 방장산 휴양림을 찾은 하계 피서객들이 방장산 활공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행성과 달을 관측하고 있다. 국립 방장산휴양림(서부지역팀장 최성회)은 여름철 휴가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휴양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하늘땅 별땅 별 보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방장산 자연휴양림 제공〉

곡성도서관서 인형극 보고 책도 나누고
독서의 달 행사 다채

곡성교육문화회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인형극·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9월23일에는 명화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명화 시계도 만들 수 있는 '똑딱똑딱 명화시계 만들기'를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일부터이며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26일에는 회관 다목적실에서 그림책 '책이 꼼지락 꼼지락'〈사진〉을 각색한 어린이 인형극을 2차례 연다.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지역 주민들끼리 책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알뜰 도서 교환전'도 운영된다. 이외 한 책 서평 쓰기, 그림책 원화 전시, 퀴즈 풀이 등 14개 행사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http : //gslib.jne.go.kr/)를 참고하거나 문헌정보실(061-363-0672)로 문의하면 된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초등생도 금연 캠페인…"늦기 전 미리 막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뭘까.

전남도고흥교육지원청이 최근 고흥 영남초 앞에서 2학기를 맞아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캠페인〈사진〉을 했다.

영남초는 전교생 28명으로, 미리 금연교육을 시켜 흡연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캠페인을 진행했다는 게 고흥교육지원청 설명이다.

직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금연을 홍보하는 피켓을 들고 금연이 써진 물티슈를 나눠주며 학생들에게 인체에 미치는 흡연의 나쁜 점을 알렸다.

영남초 관계자는 "금연 교육 뿐 아니라 학생들이 담배연기 없는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구례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추진

구례가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인구 2만7000명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절박함이 엿보인다.

군은 우선, 전담부서인 인구고용팀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해소 방안을 포함한 '인구 늘리기 종합 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조례는 이 과정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입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전입자 쓰레기봉투 및 전입 장려금(1인당 3만~20만원)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76종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파악, 지역 실정에 반영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살기 좋은 구례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인구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기자 ljt@

투자가치 높은 물건,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문의 H. 010-3605-5000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번지 - 313평
  209, 209-1번지 - 20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200만원 (조정가)

리조트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 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광양,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210평
- 2012년선축, 분할매매가능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시세/ 감정가 - 12억 5천만원
- 매매 - 7억 8000만원